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후보들, 유리한 룰 확보 신경전 치열할 듯

민주, 광역단체장 경선 ‘대의원 10·권리당원 30·일반당원 10·시민 50%’ 확정

- 1 대의원 현장투표, 권리당원 모바일투표
일반당원과 일반시민은 전화 면접 및 ARS 여론조사
- 2 대의원 순회 현장투표, 권리당원 모바일투표
일반당원과 일반시민은 전화 면접 및 ARS 여론조사
- 3 대의원과 권리당원 현장투표
일반당원과 일반시민은 전화 면접 및 ARS 여론조사

후보자간 합의로 선택... 안되면 공심위서 최종 확정

6·4 지방선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룰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기초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뒤, 각급 선거 공천 룰을 조속히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노웅래 사무총장은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광역단체장 경선 룰에 대해 보고했다. 노 총장이 밝힌 광역단체장 경선 룰은 기존에 주요 안으로 논의됐던 ‘대의원 10%,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10%, 일반시민 50%’로 구성됐다. 세부 경선 안으로는 3개 안이 제시됐다. 1안으로는 대의원 현장투표, 권리당원 모바일투표, 일반당원과 일반시민은 전화 면접 및 ARS 여론조사가 제시됐다. 2안으로는 대의원 순회 현장투표, 권리당원 모바일투표, 일반당원과 일반시민은 전화 면접 및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현장투표, 일반당원과 일반시민은 전화 면접 및 ARS 여론조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공천 여부가 마무리되면 광역단체장 경선 룰에 대해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중앙당 공심위(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를 구성, 3개 방안 가운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합의가 이뤄진 안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후보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서울과 광주, 전남에 각각 다른 경선 룰이 적용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당 공심위가 3개 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경선 룰을 정한다. 하지만 세부 경선 룰을 놓고 후보자들의 이해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현장 투

표를 놓고 후보들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높다. 조직력이 강한 후보는 권리당원의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반면, 조직적 기반이 취약한 후보는 모바일 투표제 적용을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반당원과 일반시민에 대한 전화 면접과 ARS 여론조사를 놓고도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실시된 각 지역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화면접과 ARS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임내현 광주시장 위원장은 “오늘 의총에서 광역단체장 경선 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며 “후보자들의 경선 룰 합의가 이뤄져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아름답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후보 진영에서는 경선 룰은 물론 시행 세칙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빙의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단 한 줄의 시행 세칙에 경선의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경선 룰 시행세칙은 박빙의 관세에서 승부를 좌우할 것”이라며 “결국, 유리한 시행 세칙을 세우기 위한 후보자들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의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당대표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27일 오후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만나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논의한 뒤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전당 주변

창작공간 만든다

남광주시장 등 전당 중심 300m 이내
폐가·공실 예술인들 거주 전시공간으로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주변 폐가와 빈 임대공간 등을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고 예술가와 창작자들의 거주공간으로 만드는 도심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오는 2015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시 동구지역을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머무는 문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위원장 정동채·이하 조성포럼)은 27일 광주시청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전당 주변 정비 및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르면 3월 중 문화전당 주변의 폐가와 빈 임대공간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한 뒤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포럼은 문화전당 주변에 있는 남광주시장, 금남로 4가역, 서남대병원 등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300m 이내 지역에 ‘문화인 큐베이터’, ‘문화스테이션’ 개념을 도입, 도심활성화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화인큐베이터는 문화 창작·제작공간, 공연연습실,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창작공간) 등 문화전당과 관련된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문화스테이션은 촌대, 모자, 넥타이, 카메라 등 개인 수집가들의 기증품 전시관, 소규모 공연장, 문화센터 등을 만드는 것이었다. 지원포럼의 연구결과 이같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전당 주변 공·폐가, 빈 임대공간은 모두 45곳으로 조사됐다. 임대나 매매를 거쳐 실제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모두 10곳이며, 사업비는 40~50억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포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득열 전남대 교수는 “문화전당 주변을 활성화하는 것은 문화전당 개관 효과를 도심으로 확대하고 광주시 동구지역을 문화특구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전당에 작가들이 숙박하며 창작할 수 있는 공간과 소규모 연습공간이 없는 점을 감안해 동구지역을 문화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포럼은 또 문화전당 주변 예술의 거리와 금남로 등을 인권, 환경, 교육 등 특색있는 길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조성포럼의 연구결과를 실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우선 특정공간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은 광주지역 문화전문가·교수·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100명으로 구성된 민관 단체로,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문화전당 운영분과, 7대문화권·문화도시환경, 예술진흥 및 문화산업·관광, 문화교류 인력양성 분과 등을 두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한길·안철수 회동

“기초공천 폐지 관철 끝까지 노력”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7일 회동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의 회동은 지난달 24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난 지 한 달여 만이다. 양측 대표는 이 수석대변인 외에

민주당 김관영 대표비서실장과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 박인복 공보팀장이 동석한 가운데 30여분 동안 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민주당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현명한 결단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김 대표는 “참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끝인가’ ‘무슨 노력을 한다는 건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결국, 이날 회동은 여권을 압박하

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만나자는 안철수 의원의 제의에 김 대표가 거절을 못 해서 만난 것”이라며 “처음부터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나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초공천 문제 외에 개인적인 안부를 주고받았을 뿐, 지방선거 야권연대 문제나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상권 경기도교육감 거취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양측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초 무공천 원칙 지키되 선거법 내에서 최대 지원

윤여준 새정치연합 창준위 의장 밝혀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의원의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출마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여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의장은 27일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대전시당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공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선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기초선거 무공천이) 출마하는 분들에게 손해라는 것을 알지만, 새 정치의 가치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기초선거에 나가는 분들께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른 채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장은 이어 “무공천 원칙을 지키고 선거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선거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www.guemyong.co.kr
NAVER **7월 4일** 중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음저번호**

InstaLay®

중간소음 전용 바닥재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중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뛰어난 열전도성, 중간 중량 충격음 방지, 다양한 바닥재 연출
말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룸

데코타일 직사각형

데코타일 정사각형

(주)금융건설 InstaLay®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